

### 히스레리적인 전쟁광기를 부리는 날강도 미제를 박멸해버릴 천백배 보복의지의 폭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발표후 470여만명의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 인민군대입대, 복대 탄원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완전피멸》 시키겠다고 함부로 췌쳐대며 최후발악하는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온 나라 인민이 수령보위, 사회주의수호전의 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성명이 발표된 후 6일동안에 달하는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탄원하였다.

은 나라에 거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참군열풍은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보려고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한 미친개무리를 주체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불로 다스리 고야말 강용한 우리 인민의 천백배 보복의지의 폭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

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인민이 우리의 철천지원수인 미제국주의자들과는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면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은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마지막결승선을 향한 만리마대고조진군에 떨쳐나선 천만대오의 가슴가슴을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활활 불태워주고 있다.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것을 제일생명으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가장 큰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의 청년전위들이 반미최후성전의 앞장에서 총결기해나섰다. 전국각지의 청년학생들은 모

임을 열고 《위대한 령장께서 원수격멸의 퇴성을 올리셨다》, 《500만개의 핵폭탄을 터뜨려 악의 제국 미국을 지구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보내자!》, 《부나비처럼 헤엄치는 미국미치광이들을 모조리 박멸하자!》 라는 글들을 인민군대입대, 복대탄원서마다에 써넣으며 조국보위에 앞을 닦으며 떨쳐나섰다.

조국방 방방곡곡의 일터와 교정마다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한 청년학생들은 179만여명에 달한다.

력사적인 성명발표후 3일동안에만도 평안북도에서 12만여명, 황해남도에서 9만7,000여명의 근로청년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한것을 비롯하여 미국양키들의 무모한 침략전쟁광기를 단호히 짓밟아버릴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중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

업소 등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청년들의 탄원열풍은 날을 따라 고조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리수복순천화학공업대학, 황남공업대학 등 전국의 대학들에서도 수많은 학생청년들이 당과 수령에게 다진 맹세를 지켜 조국의 존토를 피로써 사수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 지니었던 결사의 조국수호정신을 안고 혁명의 군복을 입을것을 결의해나섰다.

반미총결사전에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각지에서 열린 청년학생들의 탄원모임들에서는 철천지원수 미제와 기어이 결판을 내고야말 열혈의 복수자들이 터치는 멸적의 함성이 세차게 울려나왔다.

청년탄원자들의 가슴마다 백두밀림에서 포악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신 항일혁명선열들과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7. 27전승선화를 창조한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이

어 미국의 수치스러운 종말의 마지막페이지를 보기 좋게 써 줄 전투적기상으로 뛰어넘고 있다.

각계층 근로자들도 력사적인 성명에 접하자마자 2,500만 우리 인민의 절멸을 췌친 극악무도한 양키무리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격분으로 치를 떨며 마치와 낮을 혁명의 붉은 총창으로 바꾸어 들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올 열의드높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탄원하였다.

전국의 로동계급은 우리당이 대사변개시명령만 내리면 즉시적인 징벌타격전의 선두에서 철의 대군단이 되어 남조선에 등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물론 태평양 건너 미국본토의 씨종자들까지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각오를 안고 떨쳐나섰다.

백악관의 정신병자가 유엔무대에 플레뚜기처럼 뛰어들어 떠벌인 그 무는 《완전 파괴》 망발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사회주의협동벌의 농업

근로자들은 용약 결전장으로 달려나가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무리들을 서슬푸른 총창으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것을 결의해나섰다.

우리의 녀성들도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가 정들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날뛰는 미치광이무리들에게 참혹한 죽음과 파멸을 안길 복수의 일념으로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해나섰으며 그 수는 날로 늘어나 122만여명에 이르렀다.

투철한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을 지니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 삶의 보금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 반미결사항전에 총결기해나선 은 나라 전체 인민들은 이 행성에 온갖 불행은 몰아오는 악의 총본산인 미국을 지구상에서 초토화해버리고 최후승리의 붉은기를 높이 휘날려갈 필승의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총매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 사설 :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평화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자

오는 10월 4일은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1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평양에서 북남수뇌상봉이 또다시 열리고 여기에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와 자주통일위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 사변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10.4선언은 우리 겨레에게 통일되고 번영하는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헌신과 로고에 의해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주체96(2007)년 10월 평양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또다시 마련해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고매한 덕망으로 평양에 찾아온 남측대통령일행을 따듯이 맞아주시고 오랜 시간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실천적문제들에 명

쾌한 해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북남수뇌상봉에서는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 발표되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우리 겨레가 새 세기에 높이 들고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이정표이다. 10.4선언에는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은 겨레가 지지찬동하고 세계가 환영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그대로 리행되었더라면 북남관계는 훨씬 멀리 전진하였을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친미보수 《정권》들이 련이어 등장함으로써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일시에 얼어붙고 최대로 악화되게 되었다.

남조선의 반통일보수 《정권》들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6.15의 귀중한 성과들을 모조리 뒤집어엎었으며 조선반도를 전쟁접경의 위험천만한 지대로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초불혁명》에 의해 태어났다는 현 《정부》는 동족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핵무력강화조치들을 걸고들면서 미국과 야합하여 대조선제재와 군사적압살소동에 매달림으로써 북남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있다. 내외반통일전쟁세력의 책동으로 평화가 엄중히 위협을 받고 통일위업수행에도 난관이 조성되어있지만 우리 겨레는 비판하지 않고 더욱 용기백배하여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겨레에게는 절세위인 이시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년전 력사의 땅 관문점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할 굳은 결심과 의지를 천명하시였으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었다. 두해전 8월 군사분계선의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원인 모를 《지리사건》을 둘러싸고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에도 정세의 난황을 헤칠 단호한 결심과 전략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급접촉을 열도록 하시으로써 민족의 머리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탁월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여 겨레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자위의 핵보검으로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겨레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고계신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그이의 탁월한 령도따라 조국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나가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은 겨레가 통일의 길에서 끝까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이정표이며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이다. 6.15시대의 환희로운 나날들과 그후 북남관계를 파피에로 몰아간 지난 10년간의 나날들은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고수리행에 조선반도의 평화

와 민족의 번영, 통일이 있음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통일의 종착점을 향해 매진하려는 공화국정부의 립장과 의지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조선 압살과 핵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지키며 정의의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안아오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지금 세계가 지켜보는 첨예한 조미핵대결은 단지 공화국과 미국사이의 대결만이 아니라 우리 겨레에게 세기를 이어 온갖 불행과 재난을 강요해오고있는 미국 대 조선민족의 대결이다. 포악무도한 제국주의 깡패국가인 미국은 지금 이시각에도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를 부르짖으며 삼천리를 열핵참화지대로 만들고 우리 겨레모두를 멸살시키려고 분별을 잃고 날뛰면서 야수의 본색을 날날이 드러내고있다. 미국의 횡포한 침략광기를 짓누르지 못한다면 이 땅의 평화도 없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도 있을수 없다. 평화는 오직 조선민족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공화국의 완성단계에 이른 자위적핵무력은 미국의 침략위

협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전체 조선민족의 안녕을 지켜주는 정의와 평화의 위력한 보검이며 억만공파도 바꿀수 없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온 겨레는 동족의 자위의 핵을 걸고드는 외세에 아부굴종하면서 무분별한 대결전쟁소동으로 이 땅에 핵전쟁을 몰아오는 호전세력들의 친미사대매국행위를 용납치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재앙을 스스로 초래할 어리석은 친미굴종적자세를 버리고 전쟁을 마구 부르짖는 미국의 편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정의와 애국애족의 편에 서야 한다. 전민족의 단합실현에 민족의 자주도 있고 반전평화를 실현하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지름길이 있다. 온 겨레는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통일의 그날까지는 아직 멀고 험한 가시밭길이 놓여있지만 자주통일은 대세이고 그 승리는 필연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앞당겨오야할것이다.